

취 임 사

2018. 4. 2(월)
KDI원장 최 정 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 KDI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세종시에 자리 잡은 KDI에 와보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KDI 가족들의 뜨거운 열의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KDI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과제들을 충분히 풀어나갈 실력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높아졌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요구가 커졌으며,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KDI 원장의 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만, 시대 정신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동료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KDI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KDI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저의 소신과 함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선도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밀려오는 대내외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연구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저성장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는 KDI의 당면 과제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KDI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둘째, ‘실용성’과 ‘현장감’ 높은 실사구시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연구실에서만 진행되는 사회과학연구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 교육 현장과 다양한 시민사회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학제적 연구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KDI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연구도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와의 유기적 소통 및 대국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정책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상시적 소통 채널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부정적·긍정적 효과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KDI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KDI 스스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KDI는 지난 50년간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50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개혁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KDI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에서 아시아 주요국 5년 연속 1위, 전 세계 19위, 국제개발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며 KDI 선배들과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KDI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다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의 빛나는 성과를 이어가면서 KDI가 정책연구기관의 만형이자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 모두 KDI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